

일본 신문에 나타난 「혐한」언설의 의미 고찰*

- 1992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과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을 중심으로 -

다와라기 하루미**
springriver@kw.ac.kr

<目次>

- | | |
|--|---|
| 1. 서론 | |
| 2. 「혐한」언설에 대한 선행연구 | |
| 3. 신문기사에 나타난 「혐한」언설의 의미고찰
(1992년-2015년) | |
| 3.1.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혐한」의
기사 게재 건수 | |
| 3.2. 연도별로 본 「혐한」언설의 의미 | |
| | 3.2.1. 제1기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외교문 제화에서 한일공동선
언까지(1992년-1998년) |
| | 3.2.2. 제2기 한일관계 완화기에서 한류
의 절정기까지(1999년-2011년) |
| | 3.2.3. 제3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서 혐한서적의 출판까지
(2012년 -2015년) |
| 4. 결론 | |

主 題 語: 혐한(The Hating-Korea), 반일(Anti-Japan), 친근감(Friendliness),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배타적
내셔널리즘(Exclusive Nationalism)

1. 서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부터 50년 세월 동안, 양국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 및 일본사회와 한국사회는 크게 변화했다. 양국은 경제적으로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며, 한류·일류가 왕래하며 활발한 문화 및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글로벌화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수상의 정상회담이 아직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는 급속한 「대한감정의 악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감정의 악화」를 미디어는 「혐한」감정이라는 언설로 표현하고 있다.

* 본 논문은 2015년도 광운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광운대학교 광운한림원 조교수

그리고 이러한 「대한감정의 악화」의 배경에 대해서 오구라(小倉, 2014년)¹⁾는 「동아시아의 세력관계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한류 붐 등이 말해 주듯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의 증대와 국제사회로의 진출은 일본의 상대적인 경제력 저하와 연이은 정권 교체 등과 거의 맞물리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일본 국내에서는 일종의 좌절감과 초조함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발전한 한국」이 변함없이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과거의 양값음을 하고 있다는 반발과 연동되어, 일본 내의 혐한 감정을 격화시켰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일본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현재의 한일 양국이 경제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과거가 청산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은 일본에 의한 과거 청산의 의지가 한층 더 명확해져야만 비로소 대등한 관계가 확립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회적 문맥이 이해되지 않은 채, 「반일」「혐한」이라는 언설로 표현되는 서적과 주간지 등이 최근에 다수 출판되고 있다.

「반일」은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언설인데, 그러한 「반일」에 대응하는 일본인의 한국 인식을 표현하는 언설이 왜 「반한」이 아니라 「혐한」이라고 표현되는 것일까. 1990년 이전, 일본과 한국은 서로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당연한 듯 표현해 왔다. 그러한 말을 통해서, 한일관계는 숙명적으로 결정된 변화 없는 관계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혐한」이라는 단어는 고지엔(広辞苑, 2008년도)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한 예로써 일본의 프리 백과사전 Wikipedia²⁾를 살펴보면, 「한국과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한 혐의, 혐오 등의 감정을 표현한 용어」라고 되어 있고, 한국의 프리 백과사전 Wikipedia³⁾에는 「반한감정 : 한국의 문화·한국인 등을 싫어하는 감정으로, 한민족을 싫어하는 감정과 쉽게 연결된다」라고 하며, 「반한감정이 가장 심한 일본에서는 혐한이라는 용어가 반한감정의 대표적인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밖에도 염한(厭韓), 멸한(蔑韓), 증한(憎韓), 리한(離韓), 정한(征韓), 망한(亡韓) 등의 다양한 용어가 반한 감정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을 싫어하고 경멸하며, 기피하고 무시하는 의미가 「혐한」이라는 언설에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 또한, 이러한 단어들이 일본의 서점 한 코너를 차지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것은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서 한국의 모든 움직임이 「반일」로 규정하고, 그와 같은 단어들이 붙으면 책이 팔린다고 하는 상업주의 문맥에서 발행된 주간지나 한국을 비판하는 서적이 다수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그들 서적의 제목을 보면, ‘악(惡), 매(呆), 범(犯), 치(恥), 광기(狂氣), 이질(異質), 거짓투성이(嘘だらけ)’라고 하는 말들이 한국을 표현하

1) 小倉和夫(2014)「日韓關係をとりまく環境変化と今後の課題」『日韓關係の争点』藤原書店, pp.294-298

2) 프리백과사전 Wikipedia : <https://ja.wikipedia.org>(2015.6.26 검색)

3) 프리백과사전 Wikipedia : <https://ko.wikipedia.org>(2015.6.26 검색)

는 수식어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을 총칭해서 「협한서적(嫌韓本)」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른바 「협한」언설이 라벨링화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협한」언설이 일본사회에서 언제부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시도하도록 한다.

2. 「협한」언설에 대한 선행연구

「협한」에 관한 최근의 연구 중에서 김웅기(2014)⁴⁾는 2002년의 한일 월드컵 당시부터 「협한」언설이 인터넷 공간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2007년에 「재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⁵⁾(이하, 재특회)이 결성되어, 그전까지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었던 한국에 대한 비판이나 재일코리아에 대한 증오의 언설이 공적공간으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일본사회에 내재된 「협한」감정이 한일관계가 악화되거나 또는 재일코리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생겨났다고 지적한다.

무라카미(村上, 2007)⁶⁾는 「대마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2001년에 한국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등장해서 일본어 인터넷 권역에 유입된 이후의 전개를 소개하면서, 인터넷이 「협한」현상의 형성과 유행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대마도는 우리땅」의 작사 제작자인 최동국은 「대마도를 독도와 같은 외교 분쟁지역으로 하고자 했다」라고 그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마도는 일본영토,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해당 노래에 대한 공감기 형성된다고 해도, 일본에서는 감성적인 반발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보가 로컬 「경계」를 뛰어넘어서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자명한 전제」로 존재했던 사회적 문맥에 대한 인식이 결락되는 것이 인터넷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협한」언설을 생성시키는 토양은 사실을 중시하며 전달하려고 하는 일본 측의 「소스제일주의」⁷⁾와 한국 측의 「일본어에 의한 정보 발신」이 유착됨에 따라 초래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4) 김웅기(2014)「협한과 재일코리아」『일본학보』Vol.98, 한국일본학회

5) 2007년에 설립되어, 2013년 10월 시점의 회원수(메일등록수)는 1만 3천 명을 넘었고, 배외주의 운동 단체 중에서는 최대이며 지명도가 가장 높은 단체이다.

6)村上和弘(2007)「インターネットのなかのツシマ」『ポスト韓流のメディア社会学』ミネルバ書房

7) “소스지상주의”라고도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의 정보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주의를 말한다. 1차 정보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에 아주 가까워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차 정보원에 대한 평가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견해는 얻기 힘든 경향이 있다.

또한 기무라(木村, 2007)⁸⁾는 한류에 대항하는 개념이 「협한류」라고 말하고 있다. 2004년부터 「겨울연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한류가 일본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역할로 작용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처음에는 「한류」현상을 무시하려고도 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본격화되자 인터넷 공간 속 일부 사람들은 일본의 정계·재계·관계 및 매스컴에 뿌리 깊게 내재된 광범위한 「반일적」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음모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높일 필요성을 느꼈고, 「만화 협한류」를 출판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터넷 우익⁹⁾, 재특회, 미디어 내셔널리즘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협한」현상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협한」이라는 언설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해서, 어떠한 경위를 거치면서 현재의 「협한」현상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을 신문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인터넷의 영향으로 해마다 신문 구독자수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일본신문협회¹⁰⁾에 의하면 신문의 발행부수는 4,536만부(2014년)이고, 「전국미디어접촉·평가조사」에서는 83.6%(2013년)의 사람들이 「신문을 읽는다」고 대답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아사히신문과 한국의 동아일보가 공동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주목할 점은 최근 5년 동안 상대국의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대답한 사람이 일본 54%, 한국 59%,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준 것으로는 일본 78%, 한국 65%의 사람들이 「미디어」를 선택했던 것이다¹¹⁾. 이러한 사실에서 일본에서는 신문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다고 판단되며, 일본의 5대 신문(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미티, 니혼케이자이, 산케이) 중에서 비교적 리버럴한 아사히신문과 보수적인 산케이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본에서 「협한」이라는 언설이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것이 1992년 3월 4일의 마이니치신문이다¹²⁾.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협한」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1992년에서 2015년 7월까지의 「협한」기사의 게재 건수는 아사히는 119건, 산케이는 135건이었다. 따라서, 먼저 1992년부터

8) 木村幹(2007)「ブームは何を残したか」『ポスト韓流のメディア社会学』pp.219-220、pp.236-237

9) 인터넷 우익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의 이미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사회의 저변에서 충족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소외감과 축적된 울분을 터트릴 장소를 인터넷에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樋口直人(2014) 「日本型排外主義」名古屋大学出版会에서 「인터넷 우익에 대해서 저학력·저계층을 공통항으로 보는 것은 바르지 않고, 재특회의 배외활동을 소외된 자의 불만·불안의 폭발로 파악하게 되면, 본래 봐야 할 배외주의의 구조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며, 그것을 다름 아닌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한 배외주의라고 간주하고 있다.

10) 「신문 발행부수와 세대수의 추이」(<http://www.pressnet.or.jp> 2015.7.20 검색)

11) 「關係改善、共に願う 朝日新聞・東亜日報、共同世論調査 日韓外交正常化50年」『朝日新聞』(2015.6.22.)

12) 박수욱(2009) 「일본의 협한류와 미디어내셔널리즘 : 2ch와 일본 4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Vol.47, 한국언론정보학회, p.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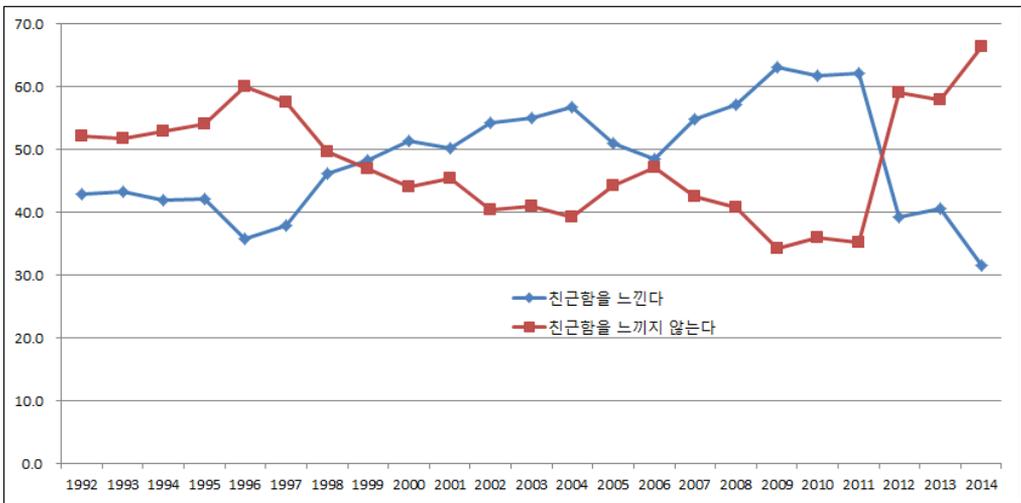
2014년까지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의 「협한」기사 게재 건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 1992년부터 2015년까지를 크게 제3기로 구분한다. 다음으로는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해독하면서, 각 신문이 「협한」이라는 언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시기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협한」언설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한다.

3. 신문기사에 나타난 「협한」언설의 의미(1992년-2015년)

3.1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협한」의 기사 게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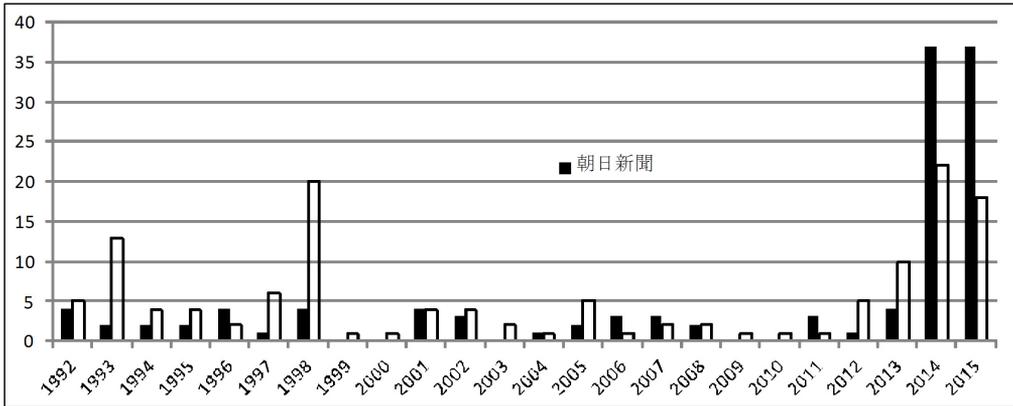
먼저, 1992년부터 2014년까지의 외교에 대한 여론조사¹³⁾,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1992년부터 2015년까지의 「협한」을 키워드로 검색된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의 기사 게재 건수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한다.

<표 1> 「한국에 대한 친근감」



13)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2014.10), 2014년12월22일(갱신일)
<http://survey.gov-online.go.jp/h26gaiko/zh/zll.html>(2015.6.30 검색)

<표 2> 「협한」을 키워드로 검색한 기사 게재 건수



<표 1>은 1992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의 조사 결과이고, <표 2>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의 「협한」을 키워드로 검색한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의 기사 게재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로 비교하기 쉽도록 함께 제시를 했는데, 표1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의 그래프를 보면, 「느낀다」와 「느끼지 않는다」의 선이 교차하는 시기가 두 번 확인된다. 첫 번째는 1998년과 1999년 사이이며, 두 번째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이다. 여기에서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3기로 구분해서 「협한」기사 게재의 연평균 건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시기별로 본 「협한」 기사 게재의 연평균 건수

「협한」기사 게재 연평균 건수	1992년-1998년		1999년-2011년		2012년-2015년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아사히신문	2.7		1.7		19.8	
산케이신문	7.7		1.9		13.8	
연평균 건수	5.2		1.3		16.8	

<표 3>과 같이 크게 제3기로 구분해 보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느낀다」를 상회하고 있는 시기는 기사 게재의 연평균 건수도 각각 5.2와 16.8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하회하는 시기는 기사 게재의 연평균 건수도 1.3으로 적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친근감」의 유무와 「협한」기사 게재 건수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시기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서로 제자리걸음 상태였지만, 1996년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전년도의 54%에서 60%로 상승하고 있다. 1996년 6월은 월드컵 한일공동개최가 결정된 해인데, 야스다(安田, 2015)는 「당초, 일본은 단독개최를 목표로 했지만,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제안으로 공동개최로 이어졌다는 경위가 먼저 (한국에 대한)반발의 베이스로 존재한다」¹⁴⁾고 지적하고 있듯이,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에 대한 반감의 표출로 추측된다. 하지만, 기사 게재 건수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제자리걸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산케이는 1993년에 13건, 1998년에 20건으로, 아사히와 비교하면 5-6배 많은 것이 눈에 띈다. 1993년은 김영삼 정권이 그리고 1998년은 김대중 정권이 발족한 해이다. 1998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는 오부치 게이쥬(小淵惠三) 총리와 「한일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산케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전후해서 11건의 기사를 통해서, 또 다시 「과거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와 「(반일이라는)과거 탈피」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교착시키고 있지만, 방일 후의 기사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다」¹⁵⁾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한일 정상이 모두 동등한 관계로서의 파트너십을 선언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98년에서 1999년에 걸쳐 「친근감을 느낀다」와 「느끼지 않는다」가 역전되었고, 이후 2011년까지의 13년 동안은 「친근감을 느낀다」가 「느끼지 않는다」를 상회하게 되는 지금까지 유례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한국 영화 「쉬리」가 상영되면서 600만 명 이상이 관람했고¹⁶⁾, 2002년에는 한일월드컵의 공동 개최, 그리고 2003년부터 NHK에서 「겨울연가」가 방영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한류 붐이 시작된다. 그러나 2001년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한일관계의 외교적 문제로 발전되어, 「친근함을 느끼지 않는다」도 전년도 대비 2% 상승했고, 기사 건수도 전년도 대비 4배(아사히 0건→4건, 산케이 1건→4건)가 증가했다. 2005년에는 「친근함을 느끼지 않는다」가 전년도의 39%에서 44%로 상승했고, 기사 건수도 전년도에는 1건이었지만, 아사히 2건, 산케이 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은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지만, 3월에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역사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며, 8월에는 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의 문서를 전면 공개하면서 일본군의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했다¹⁷⁾.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만화 협한류」가 출판되어 기노쿠니아(紀伊国屋) 판매 순위 5위를 마크하면서¹⁸⁾, 인터넷 공간에서만 존재했던 「협한」언설이 만화라는 형태로 사회에 진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2009년부터

14) 安田浩一(2015)「へいスピーチ『愛国者』たちの憎悪と暴力」文藝春秋, pp.114-116
 15) 「日韓首脳会談 金大統領『新たな協力関係』重視 対日外交、画期的に転換」『産経新聞』(1998.10.9)
 16) 「あのとき、それから」『朝日新聞』(2015.3.14)
 17) 「日韓国交正常化の外交文書公開『慰安婦、日本に法的責任』」『産経新聞』(2005.8.27)
 18) 「ブックランキング：紀伊国屋梅田本店調べ」『産経新聞』(2005.8.6)

는 한류도 드라마에서 K-pop에 이르기까지 지지층의 폭이 좁은 층까지 확대되었지만, 반면 2007년에는 재특회가 결성되어 2009년의 교토조선제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그들은 노골적인 헤이트 스피치를 시작했으며, 2011년 9월에는 방송국 후지테레비 앞에서 한국 드라마와 K-pop을 많이 방영하는 것에 대해서 「편향」이라고 비판하는 수 천 명의 사람들이 항의 데모를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사 게재 건수는 아사히 8건, 산케이 7건으로 적다. 이것은 재특회 등의 움직임¹⁹⁾에 대해서 아직 신문에서는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²⁰⁾.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친근감을 느낀다」가 13년 동안이나 「느끼지 않는다」를 상회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마지막 3년은 「친근감을 느낀다」가 60%를 넘고 있었지만,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59%(전년도 35.3%)로 급증하면서 역전되었다. 「대통령의 타게시마 상륙은 익명 사이트 2ch이나 블로그에 봉쇄되어 있었던 『협한』 감정을 한순간에 대중화시켜버렸다²¹⁾」라고 산케이에서 보도하고 있듯이, 이후의 기사 게재 건수를 보면 2012년에는 아사히 1건, 산케이 5건, 2013년에는 아사히 4건, 산케이 10건, 2014년에는 아사히 37건, 산케이 22건으로 급증한 것을 봐도 명확하다. 그리고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서 「협한서적」이라 불리는 한국을 비판하는 서적이 다수 출판되어, 2013년에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새롭게 발족,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가 전면에서 대두되면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도 2013년 58%에서 2014년에는 66.4%로 상승했고, 기사 게재 건수도 2014년의 아사히는 37건, 산케이 22건, 2015년에는 아사히 37건, 산케이 18건을 유지했다.

3.2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기사에 나타난 「협한」언설의 의미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협한」에 대한 기사 게재 건수와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제3기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외교 문제화로부터 한일공동선언까지(1992년-1998년), (2)한일관계 완화기에서 한류의 절정기까지(1999년-2011년), (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다케시마) 방문에서 협한서적의 출판까지(2012년-2015년)로 한다.

19) 安田浩一가 재특회를 직접 취재한 르포「ネットと愛国」(講談社)은 2012년에 출판되었다.

20) 「2013년 3월 17일에 신오오쿠보에서 열린 데모에 대해서 한국 마스크이 취재를 하러 왔는데, 그것이 역수입되는 형태로 일본국내의 미디어를 자극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재특회를 이슈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재특회 초대 회장인 사쿠라이 마코토(桜井誠)는 말하고 있다. 桜井誠(2014)『大嫌韓時代』青林堂, pp.28-29

21) 「『嫌韓』の奔流、称賛の陰で膨らんだ違和感」『産経新聞』(2014.1.11)

3.2.1 제1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외교 문제화로부터 한일공동선언까지(1992년-1998년)
 <1992년> 아사히 4건, 산케이 5건

「협한감정」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 재한대사였던 무토(武藤)는 「1992년 1월 16일의 『미야자와(宮沢)총리의 방한』 때였다」라고 대답하고 있다²²⁾. 그 발단으로 1991년 12월의 전 일본군 「위안부」 3명이 동경지방법판소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 총리 방한 시의 현안으로 하지 않도록 사전에 한국 측에 제의했지만, 방한 직전에 아시히신문이 「군의 관여를 증명하는 새로운 자료를 발견」이라는 기사를 게재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을 추궁하는 어조였으며, (중략)그러한 무례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무토는)항의했다」고 말한다. 귀국 후, 「특히 그전까지 한일우호를 위해 노력해 온 일본의 정계인, 지식인들로부터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을 크게 실망시켰다」고 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현재 한국 측이 말하고 있는 「일본 측의 보수적 언동」의 발단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토가 지적하고 있듯이, 최초 신문지상에 「협한」 언설이 등장한 것은 1992년이며, 아사히신문은 8월 12일의 사설에서, 산케이신문은 10월 29일의 기사가 처음이다. 아사히의 기사에서는 「『협한』이나 『반한』이라는 말이 일본의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미 관계가 정상화되어 천황과 수상이 몇 번이나 사죄를 했는데, 한국은 여전히 변함없이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불만이 일본에게 강하기 때문」²³⁾이라고 논하고 있다. 또한 산케이 기사에서는 「한국이 “과거”에 얽매며, 끊임없이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협한』 『염한』 등의 말로 표현될 정도로 일본에서의 대한감정이 악화되고 있다」²⁴⁾고 논평하고 있다. 아사히와 산케이 모두 「협한」을 한국이 “과거”에 집착하면서 끊임없이 사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일본의 「불만」 또는 「악화되고 있는 대한감정」이라고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미디어가 「협한감정」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산케이는 한국의 매스컴이 일본의 「협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냉각화된 배경에 대해서, 한국 미디어가 「한국의 북방외교 독주에 대한 일본의 불만 또는 질투가 있다」고 보도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한일관계에서 심리적 우위를 추지하려고 하는 일종의 내셔널리즘의 탓」²⁵⁾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아사히는 일본의 「협한감정」 등의 의식 변화에 대해서 한국 측도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22) 武藤正敏(2015)「日韓対立の真相」悟空出版, pp.117-119
 23) 「日韓相互の『嫌悪』を憂う」『朝日新聞』(1992.8.12)
 24) 「皇室外交・残るは韓国だけ。薄れる拒否感情、熟しつつあるご訪問の機」『産経新聞』(1992.10.29)
 25) 「首脳会談認識ずれ韓国・北方外交の“嫉妬”緩和 日本・嫌韓ムードを解消へ」『産経新聞』(1992.11.10)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일본의 「대표적인 반한 지식인」의 기고문 연재를 시작했고, 중앙일보는 한국 선수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일본인의 존재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것을 평가했다²⁶⁾.

<1993년> 아사히 2건, 산케이 13건

산케이는 1993년에 발족한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대일 요구, 비판 일변도에서 대일협력의 시대를 위한 발상으로 전환 가능할까」²⁷⁾라고 하며, 1992년부터의 「험한감정」을 포함한 한국 이탈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논평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질적 보상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자세로 전환하여, 8월 4일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가 발표되자, 산케이는 8월 15일에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수상이 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인정한 것을 한국의 신문은 크게 보도하고, 김정권도 위안부 문제를 외교현안에서 제외시키고, 대일 경제정책도 협조, 화합으로 전환했다」²⁸⁾고 보도했다. 김영삼 정권이 발족했을 당시, 「험한감정」을 포함한 한국 이탈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한국의 태도 여하라고 논평했지만, 한국의 이와 같은 태도 변화의 배후에는 일본의 사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케이는 13건 중 5건이나 오피니언 리더의 견해를 게재하고 있는데, 비교적 아사히와 가까운 논조이다. 이어령²⁹⁾은 「매스컴의 『반일』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거울로 삼고 싶어 하며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며, 매스컴이 전하는 한국과 실제 한국인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오노 마사아키(小野正昭)³⁰⁾는 「일본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국민과는 반대로, 일본국민이 구태의연한 무관심의 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했고, 야나기 겐이치(柳健一)³¹⁾는 「일본인은 더욱 더 역사를 인식하고, 한국 측의 초조함을 이해해야 한다」고 논평하고 있다.

26) 「韓国に新しい対日論調登場、日本の『嫌韓感情』紹介も」『朝日新聞』(1992.8.15)

27) 「【新韓国始動】対日協力の時代へ、批判一辺倒からの転換」『産経新聞』(1993.2.25)

28) 「【観測台】韓国が対日協調に転換」『産経新聞』(1993.8.16)

29) 「【金泳三大統領特集】李御寧・前韓国文化相 やる気出ている経営者たち」『産経新聞』(1993.2.26)

30) 「小野正昭・前駐韓日本大使館参事官 厭韓、嫌韓を超えて」『産経新聞』(1993.6.21)

31) 「【金泳三大統領特集】柳健一・前駐韓大使 『信頼』基礎に日韓関係」『産経新聞』(1993.2.26)

<1994년> 아사히 2건, 산케이 4건

식민지 근대화론을 전개한 박태혁의 『추한 한국인』(고분사)이 일본에서 20만부를 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동 서적에 대해서 한국의 잡지 등이 역사수정주의에 의한 「협한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 고분사(光文社)에도 항의의 편지와 전화가 쇄도했다. 또한, 동 서적에 대한 반론 서적 『추한 일본인』(김용운)이 한일 양국에서 동시 출판되었다. 한국에서도 당시, 『일본은 없다』, 『빈곤한 일본』 등, 일본 비판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³²⁾. 후일, 한국의 동아일보의 논설주간인 황과택은 「한국 미디어는 이전 일본을 이용한 『반일상업주의』가 있었지만, 이제는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기사는 장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2014년에 아사히신문의 논설주간과의 대답에서 말하고 있다³³⁾.

<1995년> 아사히 2건, 산케이 4건

당시, 한국에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일본인 사이에서 가장 아쉬워했던 것은 한국판·신칸센으로 불린 「서울·부산 고속철도 계획」에 프랑스의 TGV 도입이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오오쿠마 히카루(大隈暉, 도쿄은행한국총지배인)는 말한다. 만약, 일본이 수주를 따냈다고 한다면, 21세기를 향한 한일협력에 대한 과급효과는 절대적이었고, 또한 한일 해저터널과 북한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황해신칸센」 구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산케이는 논평했다. 오오쿠마는 「일본 비즈니스는 한국에게 경계심이 너무 강하다. 취하나 먹히느냐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며, 공존·협조의 발상은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한일호혜주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주장했다. 산케이는 「최근 한국에 대한 무관심, 소극적 자세가 21세기에 펼쳐질 빅 찬스를 놓친 형국」³⁴⁾이라고 논평했다. 「협한」감정에 의한 일본과 한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손실을 낳고 있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한다.

<1996년> 아사히 4건, 산케이 2건

1996년 6월 1일,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공동개최가 최종 결정되었는데, 아사히는 결정 직후에 양국의 입장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일본이 (단독개최에)전력을 기울였다면, 한국에 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보였기 때문에, 패배 분위기가 만연한 것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도, 「기자회견에서 고충을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을 보이지 말았어야 했다. 무엇보다 배워야 할 것은 한국인들의 전환의 빠름이다. 『공동개최라도 개최는 개최』라고

32) 「『醜い 韓国人』筆者名乗り出て！抗議のグループが来日」『朝日新聞』(1994.8.5)
33) 「(対談)日韓の緊張、メディアの役割 朝日新聞・大野博人×東亜日報・黄鍋澤」『朝日新聞』(2014.6.24)
34) 「発想の転換 アジアの懸け橋へ着々」『産経新聞』(1995.1.12)

인정하고, 솔직하게 기뻐하고 있다」³⁵⁾라고 평하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일본 측에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 찬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³⁶⁾고 촉구하고 있다.

산케이는 개최 결정 2주일 전의 기사에서 「(일본의)여당에서 나온 공동개최론은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 배려하는 성격이 강한 듯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일본이 유치에 실패한 경우의 『협한감정』의 고조 가능성도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다」³⁷⁾고 하며, 산케이는 월드컵 공동개최 결정이 한국의 「반일」감정과 일본의 「협한」감정이 유동적인 가운데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보도했다.

<1997년> 아사히 1건, 산케이 6건

산케이는 김영삼 정권이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동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를 다수 게재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이 「역사 수정하기」라고 말하며 구조선총독부청사를 해체·철거 등, 대중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 한일관계는 「근래 최악」³⁸⁾이 되었다고 논평했다. 더욱이 「지금까지 일본의 『협한·염한감정』의 실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한국 매스컴도 금융위기에 직면한 것을 계기로 한일관계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³⁹⁾고 논했다.

<1998년> 아사히 4건, 산케이 20건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방일했을 당시, 오부치 게이조와 「한일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일본과 한국의 파트너 십」을 발표했다. 산케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4일 전부터 8건의 기사를 통해서, 한일공동문서 속에서 사죄에 관한 부분이 무라야마담화 범위 내에서 구상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⁴⁰⁾, 김대중 대통령이 이번 일본 측의 사죄와 반성을 계기로 외교적 의미에서의 ‘과거 탈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평했다⁴¹⁾. 하지만 방일 후(3건)에는 「김대통령은 이번에 한국의 대일 외교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⁴²⁾라고 높게

35) 「サッカーW杯共催、心開きあうチャンス 渡辺勉」『朝日新聞』(1996.6.24)

36) 「共催を日韓の未来への糧に」『朝日新聞』(1996.6.2.)

37) 「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招致 与党に日韓共催論浮上 対日感情悪化を懸念」『産経新聞』(1996.5.14)

38) 「韓国大統領選(下)反日カード」『産経新聞』(1997.11.29)

39) 「韓国、対日外交を反省 金融危機きっかけ、感情論牽制 竹島問題の棚上げ論も」『産経新聞』(1997.12.30)

40) 「日韓共同文書への憂慮 小堀柱一郎 明星大学教授」『産経新聞』(1998.10.3)

41) 「今度こそ日韓新時代 金大中大統領来日(上) 知日派大統領アピール」『産経新聞』(1998.10.4)

42) 「日韓首脳会談 金大統領『新たな協力関係』重視 対日外交、画期的に転換」『産経新聞』(1998.10.9)

평가했다. 「한일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의 협력관계가 양국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일본의 대한경제지원 등을 높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일본국민의 『협한감정』에 대한 배려가 느껴짐과 동시에 한국국민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콤플렉스의 대일불신 심리로부터의 탈피를 바라는 의도도 있다」⁴³⁾고 논평했다.

아사히는 이번 「한일공동선언」에도 사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일본이 몇 번이나 사죄했음에도 불구하고⁴⁴⁾, 반복해서 한일관계가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분규한 것은 「일본 측에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며, 식민지 지배를 긍정하는 듯한 관료의 발언이 끊이지 않고, 한국의 강한 반발을 산 결과 반일감정이 고조되어, 그 반동으로 「협한」감정이 증폭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인 한 명 한 명이 식민지 지배에 의해서 조선반도의 사람들에게 준 고통과 슬픔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⁴⁵⁾고 논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시기에는 일본군의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과거」에 집착해서 끊임없이 사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측 정재계나 지식인 등 사이에서 한국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이에 대해 매스컴은 「협한감정」이라고 기술했다. 당시,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비해, 일반적인 일본인의 한국 관심은 거의 없고, 한국이 「과거」에 집착하여 끊임없이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협한감정」은 그전까지의 한일관계에 노력해 온 일부 사람들 사이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죄해 온 일본이지만, 아사히는 한일관계가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분규한 것은 식민지 지배를 긍정하는 관료의 발언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한국의 반일감정이 고조되었고, 그 반동으로 일본에도 「협한」이 증폭된다고 하는 악순환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망언피로」, 일본은 「사죄피로」라고 하는 구도이지만, 아사히는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논하는 반면, 산케이는 일본이 사죄를 해도 각료의 문제발언에 의해서 사죄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협한」감정의 원인은 「과거」에 집착하는 한국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43) 「日韓首脳会談 首相「痛切な反省とお詫び過去離れのきっかけに」『産経新聞』(1998.10.8)

44) 1990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방일했을 당시, 천황이 「통석의 염(痛惜の念)」을, 1993년에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수상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를, 그리고 1995년에는 무라이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45) 「日韓に真の新時代を金大統領来日」『朝日新聞』(1998.9.30)

3.2.2 제2기 한일관계 완화기에서 한류 절정기까지(1999년-2011년)

<2001년> 아사히 4건, 산케이 4건

2001년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⁴⁶⁾가 한일관계의 외교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산케이신문에 다음과 같은 「독자로부터의 목소리」가 게재되었다. 한국의 자매도시와의 소년 축구 우호친선경기를 시작한지 3년째, 한국 측으로부터 교과서 문제를 이유로 경기를 보류하고 싶다는 연락이 방일 2일 전에 전해졌다.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급히 한국을 방문해서 행정 담당자와 축구협회 회장을 만났지만, 결국 국내 분위기가 냉담하기 때문에 방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극히 감정적인 태도로 한일의 연결고리를 단절시켜버리는 것에 심한 분노를 느끼며, 정치와 민간외교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아직 선진국가가 될 수 없는 한국의 모습을 목격했다⁴⁷⁾. 이와 같은 풀뿌리 교류를 일시적인 감정으로 차단함으로써, 모처럼의 우호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으며, 역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협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다.

<2002년> 아사히 3건, 산케이 4건

2002년은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가 성공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일본인에게 「협한파」를 증가시켰다는 의견도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산케이는 「매스컴 보도, 특히 텔레비전의 너무 고의적인 한국 편애」를 들고 있고⁴⁸⁾, 2014년 「『협한』분출, 칭찬 뒤에 팽창하는 위화감」이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2005년에 출판된 「만화 협한류」는 첫머리에서 동 월드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 선수의 계속되는 거친 플레이가 반칙 판정을 받지 않거나, 한국 응원단이 독일 팀을 「히틀러의 자손」이라고 매도하는 일탈행위 등을 문제시하지 않는 일본의 미디어에 의문을 제기한다. 「만화 협한류」의 저자인 야마노 샤린(山野車輪)은 「한국을 비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웬지 이상하다는 느낌이 결정적으로 든 것이 월드컵 보도였다. 『협한』은 한국이나 한류 붐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한국 비판을 터브시하는 대형 미디어의 풍조에 대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견해를 내놓았다⁴⁹⁾.

아사히는 9월의 일조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사건⁵⁰⁾으로 피해자 8명이 사망했고,

46) 일본 근대사의 가해 기술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는 「만드는 모임」이 출판한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에 통과한 것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그것을 외교문제로 부각시킨 결과,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교과서의 최종 채택률은 0.4%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47) 「【談話室】日韓交流中止再考求めたが」『産経新聞』(2001.8.6)

48) 「産経抄」『産経新聞』(2002.7.1)

49) 「日韓関係(1)『嫌韓』の奔流 称賛の陰で膨らんだ違和感」『産経新聞』(2014.1.11)

5명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리고 「일본인의 분노가 일제히 폭발하고 있으며, 이것은 재일코리안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충격과 불행이다」라고 『봉선화 노래』를 집필한 작가·이정자는 말한다⁵¹⁾. 이와 같은 말이 암시하고 있듯이, 일조정상회담 이후의 모든 매스컴에서 연일연야 북한을 비판하며 증오를 부추기는 보도가 이어졌고⁵²⁾, 조선학교 학생들이 폭언·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속출했다⁵³⁾. 2007년에는 「재특회」가 결성되었는데, 2009년 12월 4일 오후 1시경, 교토조선제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시간에 걸친 대음량 마이크를 사용한 헤이트 스피치⁵⁴⁾가 재특회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재특회는 납치문제로 발생한 북한에 대한 증오·적의를 재일코리안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시켜갔다. 이와 같이, 월드컵과 북한의 납치문제가 인터넷 공간의 「협한」언설을 폭발시키는 발단이 된 것이다.

<2005년> 아사히 2건, 산케이 5건

200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지만, 6월 20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의 공동발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40주년」을 계기로 양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 측에서는 59%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반면, 한국 측에서는 90%가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60%가 「좋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 측은 89%가 「나쁘다」고 대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산케이는 그 원인을 「일본 측의 『호한(好韓)』은 『민간주도』에 의한 한류의 영향이고, 한국 측의 『반일』은 『정부와 매스컴 주도』에 의한 『일본 숨기기』가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논하고 있다. 「일본 숨기기」란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 협력의 성과가 한국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⁵⁵⁾라는 것이다. 또한, 8월에 한국정부가 1965년의 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의 외교문서를 전면 공개했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문

50) 북한은 오랫동안 사건에 대한 관여를 부정해 왔지만, 2002년에 평양에서 개최된 일조정상회담에서 일본인의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일본정부가 인정한 납치사건은 12건, 납치 피해자는 17명이지만, 북한정부 측은 이들 중 13명에 대해서 납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현재 5명이 일본으로 귀국했지만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8명은 사망, 4명은 입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1) 「時代遅れの犯罪なぜ?拉致事件、在日にも衝撃」李正子『朝日新聞』(2002.10.2)

52) 북한 납치 피해자 관련 뉴스 보도는 방대하며, 2002년부터 2005년 4년 동안 와이드 쇼에서의 방송시간은 1위 또는 2위를 차지했다. 石田佐恵子(2007)『韓流ブームのさまざまな語り手たち』ミネルブ書房, pp.16-18

53) 師岡康子(2013)『ヘイト・スピーチとは何か』岩波親書, pp.3-5, p.27, p.57

54)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추방하라」 「북한 스파이 양성기관」 「범죄자 조선인」 「조선학교, 이런 건 학교가 아니다」 등.

55) 【日韓40年 韓流と反日と】(上)紹介されない協力の成果『産経新聞』(2005.6.21)

제에 대해서 「정부가나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는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외교마찰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고 논하고 있다⁵⁶⁾.

한편, 산케이는 일본의 『만화 혐한류』가 출판되어 기노쿠니야 랭킹 순위 5위를 마크했다고 전하며, 「수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혐한』의 움직임을 테마로 해서, “은사마비판(은様批判)”은 아니다⁵⁷⁾」라고 설명하는 한편, 아사히는 동 서적의 제목도 언급하지 않고 「『혐한』이라는 말을 쓴 만화」라고 평했다⁵⁸⁾. 『만화 혐한류』는 일본의 익명 사이트 <2ch>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상에서의 언설, 즉 영토문제나 역사인식에 대한 한국 측의 주장을 전부 부정하고, 더욱이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고 있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비판 등을 종합해서 만화로 구성한 것이다. 동 만화가 출판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까지 미확인 정보에 머물러 있던 「혐한」 언설이 출판 매체가 가지는 공식성과 사회적 위상을 획득하면서 공적인 정보영역으로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⁵⁹⁾.

<2011년> 아사히 3건, 산케이 1건

9월 초순, 한류 드라마나 K-pop을 방영해 온 후지테레비⁶⁰⁾를 「편향」이라고 비판하는 수 천 명의 시민이 「혐한 데모」에 참가했다. 아사히는 이와 같은 「기묘한 현상」의 배경에는 「사람들과 미디어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바꾼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내놓았다. 즉, 대지진 당시, 정부와 기존의 미디어가 발신하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인터넷 사회에서 서로 지혜를 제공하고, 정보를 보충하며, 수취한 사람이 확산시키는 습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터넷을 만능으로 생각하고, 기존의 미디어를 부정하는 냉정함이 결여된 논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⁶¹⁾.

한일공동선언에 의해 개최된 양국의 민간교류의 화합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까지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교과서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감정적인 대응에 의해 풀뿌리 교류의 연결고리가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일본의 일반 국민들에게 「심한 분노」와 「한국에 대한

56) 「日韓外交正常化の外交文書公開『慰安婦、日本に法的責任』『産経新聞』(2005.8.27)

57) 「ブックランキング 紀伊国屋梅田本店調べ(7/25-31)」『産経新聞』(2005.8.6)

58) 「(社説)2006謹賀新年 武士道をどう生かす」『朝日新聞』(2006.1.1)

59) 정수영(2010)「『만화 혐한류』의 이야기 분석을 통해 본 일본 내 혐한류에 관한 연구」한국출판학연구 제58호, p.192

60) 2011년 7월의 방송 시간표(관동지방판)에 의하면, 한국 드라마의 지상파 방송시간은 フジテレビ는 매일 약 38시간, TBS는 19시간, テレビ東京는 12시간, NHK는 4시간, 日本テレビ와 テレビ朝日は 방영하고 있지 않다. (프리백과사전 Wikipedia : <https://ja.wikipedia.org>. 2015.10.27 검색)

61) 「ジテレビ・デモ 震災が生んだ覚醒と熱病」『朝日新聞』(2011.10.5)

실망」 등이 「협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동 시기의 「협한」 언설은 월드컵과 북한의 납치문제를 계기로 인터넷 공간에서 표출되었고, 이것이 『만화 협한류』를 통해서 아날로그의 일반 사회로 유출되었으며, 자칭 ‘행동하는 보수’ 재특회에 의해서 후지테레비에 대한 「협한」 데모, 재일코리안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러한 「협한」 언설의 의미는 한국, 북한, 재일코리안의 본질을 「반일」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그 논리에는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역사적 문맥이 결여되어 있다⁶²⁾. 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한 기사가 산케이와 아사히 어느 쪽도 대부분은 「협한」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2007년에 아사히는 한중일 합동 심포지엄 「한중일 신세대와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인터넷 무대에서 「내셔널리즘」이 강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 표출된 내셔널리즘은 각국 모두 우려해야 할 수준이며, 영토분쟁 및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⁶³⁾.

산케이는 「지금의 발전한 한국의 모습과 일본에 대해서 사죄하라, 반성하라, 보상하라 라고 말하는 한국의 『약자의 이미지』와는 격차가 있다」라고 전하면서, 「일본 지배 당시의 『과거』와 관련된 한국에서의 일본비판, 일본규탄을 『반일』이라고 규정한다. 더욱이 일본사회에 『협한 감정』이 확산된 원인은 한국의 사죄와 반성에 대한 집요한 요구가 있었기 때이며⁶⁴⁾, 또한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협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협력의 성과에 대해서 정부와 매스컴은 전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불만」으로 소개하고 있다⁶⁵⁾.

3.2.3 제3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다케시마) 방문에서 협한서적의 출판까지(2012년-2015년)

<2012년> 아사히 1건, 산케이 5건

8월 1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산케이는 「대통령의 타케시마 상륙은 익명 사이트 2ch과 블로그에 간혀 있던 『협한』 감정을 순식간에 대중화시켜버렸다」⁶⁶⁾ 라고 논평했고, 재특회의 사쿠라이 마코토(桜井誠)는 「(그것을 계기로)일본인으로서 분노를 직접적으로 한국인에게 전하는 방법으로써, 재일코리안이 집주하고 있는 신오오쿠보(新大久

62) 樋口直人(2014)『日本型排外主義』名古屋大学出版会, pp.203-204

63) 「合同シンポ『日中韓の新世界と北東アジアの未来』」『朝日新聞』(2007.5.30)

64) 「【日韓新考 反日感情の表裏 やれやれ、またか...】」『産経新聞』(2002.4.18)

65) 「【日韓40年 韓流と反日と】(上)紹介されない協力の成果」『産経新聞』(2005.6.21)

66) 「『嫌韓』の奔流、称賛の陰で膨らんだ違和感」『産経新聞』(2014.1.11)

保)에서 한국 규탄의 데모를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2013년 1월 12일에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67).

<2013년> 아사히 4건, 산케이 10건

고하리(小針, 2014)⁶⁸)는 당시의 주간지 보도 등의 「혐한」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사법판단⁶⁹) 등에 대해서 「결집」 「무법」으로 인식하고 의의신청을 하는 기사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사도 하나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7월 28일, 축구 동아시아컵 한일전에서 한국 측 관중석에 안중근과 이순신을 그린 플래카드와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는데, 일본 측 응원석에서는 욕일기를 흔들려고 하자 경비원에게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한국 축구협회는 「FIFA(국제축구연맹)가 축구장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붉은 악마 응원단은 자성해야 했다」라고 말했지만, 협회에 대해서 「친일적이다」 「사대주의적 대응이다」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리고 31일의 HP의 공개문에서는 「일본 측의 응원단이 욕일기를 흔들고, (한국 측을) 자극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라고 책임을 일본 측에 전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산케이는 「『반일』 여론에 놀려 말을 바꿨다」⁷⁰)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마도에서 도난당한 불상이 한국에서 발견되었는데, 대전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반환을 저지당하게 되면서(13년2월), 대마도시와 한국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과적으로 매년 8월에 개최되어 온 「이즈하라항(巖原港)축제 대마도아리랑제」는 「대마도이즈하라항축제」로 변경되어 개최되었다. 이 축제의 고안자이자 불상을 도난당한 관음사의 다나카 부시코(田中節考)·전 주지스님은 공동 개최에 반대하며 「국가 간에 사이가 악화되어도 지역 레벨의 교류를 통해서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이 짧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산케이는 「한국의 반일행위에 (일반 국민들도)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는 혐한의 ‘지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논평했다⁷¹). 이와 같이 산케이는 일본의 의향에 맞지 않는 한국의 언동에 「반일여론」 「반일행위」라고 하는 「반일」을 라벨링하고 있다.

또한, 「일미동명 강화에 『일본재군비!』를 외치는 한국의 유치한 반일 내셔널리즘」이라는

67) 桜井誠(2014)「大嫌韓時代」青林堂, pp.25-27

68) 小針進(2014)「分析—日本と韓国のどこに問題があるのか」『日韓関係の争点』藤原書店, p.121

69)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로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사이에서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판단(2011.8),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방화를 인정한 중국인 용의자를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울고등재판소 결정(2013.1) 등.

70) 「サッカー『反日』横断幕、呉善花さん入国拒否…韓国に蔓延する '超法規' のわけ」『産経新聞』(2013. 8.4)

71) 「盗んだ仏像『返さぬ』、日本の善意踏みこむ韓国…ついに民間親善もしばむ交流、強まる『嫌韓』」『産経新聞』(2013.9.9)

기사에서는 한국정부 및 매스컴에 대해서 「언제까지 유치한 이미지론을 통한 대응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로 일본 비난을 반복하고 있고, 일러바치기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평하면서, 「반일 내셔널리즘과 협한 내셔널리즘은 서로 상대방이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다」⁷²⁾라고 논평했다.

<2014년> 아사히 37건, 산케이 22건

전년도와 비교해서, 아사히는 9배나 기사가 증가했고, 산케이는 2배 증가했다. 아사히의 기사를 분석해보면, 「의문이 제기되는 기존의 미디어」⁷³⁾라는 기사에서는 지금까지 기존의 미디어가 인터넷을 한 단계 낮은 존재로 간주해 온 것을 반성하고, 기존 미디어의 생존의 방법으로써 「미국에서 인터넷의 소문과 거짓 검증 작업은 매스미디어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논의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도 하고, 2011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우호를 외치며, 일본인 청년이 서울에서 프리허그를 시작해서 그 동영상이 국내외에 확산되어 40만회 이상 재생되었다고 하는 기사 등이 게재되어, 「협한」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는 기사가 많았다⁷⁴⁾.

하지만 산케이는 2012년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지금까지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적지 않은 일본인이 『협한』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과 역사인식을 이유로 정상회담에 응하려고 하지 않는 박근혜 현 대통령의 태도를 공공연히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⁷⁵⁾라고 지적하면서, 2013년 말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아베수상을 비판하는 한국에 대해서, 「민관이 합세한 아베 두드리기에는 예의를 모르는 표현도 많고, 지켜야 할 선을 넘고 있다」라고 평했다. 더욱이 조선일보가 「원인은 일본에 있다. 일본이 바꾸지 않는 한, 해결의 실마리는 앞으로도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논한 것에 대해서, 산케이는 「한일관계는 지금 사실상 외교단절 상태에 있다」⁷⁶⁾라고 대응했다. 이듬해에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지만, 「한국에서는 『위안부나 징용자의 문제해결을 일본에 추궁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양국의 협한, 반일감정이 「외교 레벨 이상으로 심각하다」라고 논하고 있다.

2003년의 드라마로부터 시작된 한류가 2009년부터 K-pop을 통해 젊은 층에까지 침투하게

72) 「日米同盟強化に『日本再軍備!』と叫ぶ韓国の幼稚な反日ナショナリズム」『産経新聞』(2013.10.12)

73) 「(言論空間を考える)問われる既存メディア」『朝日新聞』(2014.12.17)

74) 「街頭ハグ、日韓ほっこり 日本人青年、友好訴えソウルで。『なんか泣ける』動画拡散」『朝日新聞』(2014.8.7)

75) 「日韓関係(1)『嫌韓』の奔流 称賛の陰で膨らんだ違和感」『産経新聞』(2014.1.11)

76) 「『日本は寂しい島国になる』 韓国の反日ナショナリズム」『産経新聞』(2014.1.26)

되었고, 2011년의 NHK 홍백가합전에는 K-pop 가수 세 그룹이 출연했지만, 다음 해에는 선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미디어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일본과의 대립과 독도의 영유권문제의 영향 등으로 「배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산케이는 「한국 미디어의 내셔널리즘적인 견해」라고 비판했다⁷⁷⁾. 다음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에도 한국 가수가 출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산케이는 「3년 연속 선출되지 못한 이유에는 일본 국내에서의 한류 붐의 종언이 배경에 있다」고 논하면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한국 미디어는 한일관계의 악화와 K-pop 인기의 하락을 전하는 데 멈췄다⁷⁸⁾」라고 논평했다. 이와 같이, 한국 미디어와 산케이는 서로 배타적인 내셔널리즘의 견해를 전하면서, 마치 막말에 막말로 응수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해 「언론의 자유」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아사히와 산케이가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사건이 2건 있었다. 첫째는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사건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에 관련된 기사를 둘러싸고, 서울중앙지검이 2회에 걸쳐 지국장을 소환한 적이 있었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풍문을 안일하게 쓴 동 신문의 보도 자세는 반성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최대한 존중해야 할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박정권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권력 남용이라 해도 도리가 없다⁷⁹⁾」라고 논평했다.

둘째는 일본군의 「위안부」문제와 관련된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으로 협박문이 도착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전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국적」 「반일」 등의 증오를 부추기는 말로 개인에 대한 공격이 반복되었고, 미공개된 자택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올라와 협박성 장난전화와 고등학생 장녀의 사진까지 실명으로 인터넷 상에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서, 산케이를 비롯한 각 신문이 「대학에 대한 협박문, 언론 봉쇄의 테러를 용서하지 말라」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동 사건의 시발점은 「주간분춘(週間文春)」(2014년 2월 6일호)에서 「아사히신문 기자가 여자대학 교수로」라는 기사를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인터넷상에서 대학에 대한 항의전화 및 메일을 집중 포화하면서 호소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학 측은 채용을 취소했다⁸⁰⁾. 잡지의 판매 실적만을 우선시하며 선정적인 기사를 써서, 개인을 미끼로 공격하는 인터넷 문화의 폭력성을 노정시킨 사건이다.

또한, 2013년 무로타니 가즈미(室谷克美)의 「악한론」(산케이신문사)의 출판 이후, 우후죽순으로 「혐한서적」이라 불리는 이른바 한국을 비판하는 서적이 다수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77) 「努力なき『K-POP』2年連続 "紅白落選" で韓流終焉は不可避…もはや韓国メディアも『反日論評』せず沈黙」『産経新聞』(2014.1.6)

78) 「中国版紅白歌合戦からも『出ていけ』と嫌われる韓流」『産経新聞』(2014.12.29)

79) 「韓国の朴政権 報道への圧迫許されぬ」『朝日新聞』(2014.9.3)

80) 「慰安婦報道、元記者の家族も攻撃、ネットに子の写真や実名」『朝日新聞』(2014.10.7)

되기도 했다⁸¹⁾. 잡지 「다카라지마무크(宝島ムック)」에서 많은 협한 특집을 편집해 온 와타베 텃페(渡邊哲平)는 「협한 기사의 정보원은 한국 일간지(중앙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의 일본 어판」이라고 말하며, 「일본을 비하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칭찬하고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일본을 비난하는 부분만(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출판사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출판사가 결정하면 무엇이든지 만든다고 하는 상업주의에 입각해서 편집했다고 말하고 있다⁸²⁾. 그곳에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함으로써, 여론을 크게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때,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평가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해, 관동대지진으로부터 91년이 흘러,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정리한 서적 『9월, 도쿄의 거리에서(九月、東京の路上で)』가 출판되었다. 저자인 가토 나오키(加藤直樹)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장소에서, 그 때, 학살이 있었다. 도쿄는 학살의 역사를 가진 마을이라고 하는 기억을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헤이트 스피치였다」라고 말한다. 가토는 헤이트 스피치가 전개되는 신오오쿠보에서 태어나 자라, 재일코리아 친구 아버지의 가게 앞에서 「바퀴벌레는 썩 나가라(ゴキブリは出ていけ)」라는 등의 규탄을 목격하고 쇼크를 받았다고 한다. 가토는 「역사를 부정하고 타민족을 우리들과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게 되면, 폭력에 대한 죄악감이 감소된다. 관동대지진에서는 그러한 의식이 학살의 토대를 만든 것을 지금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한다⁸³⁾. 이와 같은 가토의 말은 현재의 「협한」현상에서 나타나는 헤이트 스피치나 협한서적, 그리고 그들의 모체가 된 인터넷에서의 「협한」언설이 밀거름이 되어서,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의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2015년> 아사히 37건, 산케이 18건

이것은 2015년 7월 초순까지의 기사 건수인데, 아사히의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한 37건이고,

81) 「2014年度の週間ベストセラーTOP10に入った韓国に関する主な本(トーハン調べ)」. 『悪韓論』『呆韓論』(室谷克美, 産経新聞社), 『嘘だらけの日韓近現代史』(倉山満, 扶桑社), 『모일론「한국인」은 왜 일본을 증오할까』(오선화, 문예춘추), 『이제 이 나라는 포기하라! 한국의 광기와 이질성』(오선화·세키 헤이, 웹출판사), 『한국인による恥韓論』(シンシアリー, 扶桑社), 『犯韓論』(黄文雄, 幻冬舎ルネッサンス), 『ディス・イズ・コリア 韓国船沈没考』(室谷克美, 産経新聞社), 『哀しき半島国家 韓国の結末』(宮家邦彦, PHP연구소) 『朝日新聞』(2015.7.8)

82) 木村元彦(2015)「嫌韓誘導記事を量産した編プロ社員が語る「責任」」『さらば! 〜イト本』ころから出版 pp.16-25

83) 「〜イトスピーチ、91年前の悲劇浮かぶ 関東大震災時の虐殺」『朝日新聞』(2014.10.12)

그것은 산케이의 건수의 2배이다. 아사히는 사설⁸⁴⁾에서 「일본에서의 『협한』 기세는 한창 때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전체가 『반일』인 것 같은 지적은 남아 있다」고 논했다. 더욱이 「한국 미디어는 일본사회가 『우경화』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증폭시키고 있고, 일본 미디어는 한국의 일본비판과 중국에 대한 접근 등을 『반일』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는 것 역시 일본의 협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논하면서, 「우경화」나 「반일」이라고 하는 「라벨링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도록」⁸⁵⁾ 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시시키고 있다. 또한, 아사히는 「협한」의 기세가 약화된 징후에 대해서, 2014년을 정점으로 협한서적의 출판도 시들어졌다고 전하면서, 그 배경에는 출판사나 서점의 양심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하는 기사를 게재했다⁸⁶⁾. 그리고 2013년부터 재특회의 동경·신오오쿠보, 오사카·츠루하시 등의 재일코리아 밀집지역에서의 데모가 정형화되면서, 주말이 되면 길거리에는 섬뜩한 문구가 난무하고, 확성기를 통해서 「재일코리아는 조국으로 돌아가라」 「◇◇바뀌벌레!」 등의 절규하는 데모가 일상화되었다⁸⁷⁾. 이와 같은 「협한」 데모에 반발해서 「창피한 줄 알아라」 「인간 쓰레기」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반대 데모⁸⁸⁾를 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증가하고 있고, 6월 1일에는 나고야에서, 그리고 7월 6일에는 삿포로에서 재특회의 데모에 반대하는 수 십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보행하며 「헤이트 스피치를 멈춰라」 등의 목소리를 외쳤다고 하는 기사를 게재했다⁸⁹⁾.

산케이는 「계속되는 아베 비판의 이면에 『외교고립』을 두려워하는 한국 여론은 『국가의 수치』 『어른이 되어라』」⁹⁰⁾의 기사에서, 아베수상의 미의회 연설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없다고 한국에서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한국은 집요하게 과거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조선일보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84) 「日韓外交正常化50年 悲劇の詩人の思いを胸に」『朝日新聞』(2015.3.2)

85) 「日韓外交正常化50年 相互不信の連鎖断ち切れ 西野純也」『朝日新聞』(2015.4.25)

86) 도쿄의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와시타 유(岩下結)가 「협한·협중」을 테마로 한 서적의 연이은 출판 상황에 위기감을 갖고 동료들과 함께 「헤이트 스피치와 배외주의에 가담하지 않는 출판 관계자의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고, 오사카의 대형 서점에 「반 헤이트 서적」의 상설 코너가 등장하기도 했다. 설치를 결정한 후쿠시마 사토시(福嶋聡) 점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웃나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서적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 위화감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嫌中韓の本に投じる一石 書店、反ヘイト」상설『朝日新聞』(2015.7.8)

87) 安田浩一(2015)『ヘイトスピーチ「愛国者」たちの憎悪と暴力』文芸新書, pp.29-34

88) 「ヘイトスピーチをたたく 差別への怒り共有 どんどん罵倒してへこませたい」『朝日新聞』(2013.8.10) 2010년부터 재특회 등에 대한 대항 운동에 참가해 온 노마 야스미치(野間易通, 「레이시스트 시바키대(レイシストをしばき隊)」주제)는 「그들도 우리들도 일본사회의 다수파. 그런 경우 서로를 매도하는 광경만을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이나 매한가지』. 하지만 그들이 사회의 소수파, 마이너리티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들이 그것에 반대하고 있다. 어느 쪽에 정의가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다.

89) 「札幌でも嫌韓デモ 反発する人々も 沿道で怒号の応酬」『朝日新聞』(2015.7.6)

90) 『朝日新聞』(2015.5.21)

「한국 외교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비평했다. 또한, 「한국 미디어는 ‘아베 죽이기’를 비롯한 격렬한 반일정보, 반일보도를 양산하고 있으며, 그것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본사회에 즉각적으로 대량 유입된 결과, 폭발한 것이 협한감정이다」고 하면서, 「한국 매스컴은 일본인이 왜 분노하고, 일종의 ‘한국 탈피’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국사회에 거의 보도하고 있지 않다⁹¹⁾」라고, 협한감정의 원인은 한국 미디어의 책임이며, 더욱이 한국 미디어는 그와 같은 사실을 한국 사회에 보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28년 전에, 아사히신문 한신지국(阪神支局)에서 기자 두 명이 산탄총을 소지한 남자에게 사살당한 사건으로 숨진 고지리 도모히로(小尻知博) 기사를 추모하며, 언론의 자유를 생각하는 「『보고·듣고·말하다』는 지금 전시회를 개최했다⁹²⁾. 「의견이 다르면 압력, 배제, 무시 또는 공갈. (사건이 발생한)1987년 5월 2일 이래,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지금, 귀를 기울일 가치도 없는 추한 말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서점에는 협한·반중서적(反中本). 우리들은 고지리 기자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을까요」 등의 방문자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현재 일본사회에 대한 위기감과 자성의 목소리를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협한」 언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불특정다수의 일반 국민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11만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보수잡지 「WILL」의 표지와 목차에는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표제⁹³⁾가 난무하고, 특히 일본의 전철에는 잡지 표제가 인쇄된 광고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출근·통학하는 길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서점에는 「협한서적」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었다.

둘째, 양국의 미디어가 배타적인 내셔널리즘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논법을 반복했던 것이다. 2013년, 거의 같은 시기에 발족한 한일 양국의 현 정권은 일본군의 「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아베수상은 고노담화를 재검토할 생각을 나타내는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고노담화를 계승할 것을 바란다고 하는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했다⁹⁴⁾.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한일관계를 배경으로 양국의 미디어는 배타적인 내셔널리즘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논법을 반복하고, 산케이

91) 「日本大使が90度に腰曲げ…? 誇張歪曲扇動する韓国メディア」『産経新聞』(2015.4.12)
 92) 「小尻記者を追悼 阪神支局襲撃28年」『朝日新聞』(2015.5.4)
 93) 「불쌍한 3등국, 한국, 「세계가 싫어하는 한국인과 중국인, 「한국이야말로 세계 제일 매춘 수출 대국이다, 「수치를 모르는 한국과는 국교 단절, 「한국인은 세계 제일의 거짓말쟁이 민족이다. 梶田陽介 (2015)「花田編集長は「へイト本という方がへイト!」と逆ギレした」『さらば! へイト本』ころから出版, p.67
 94) 다와라기 하루미(2015)「일본군『위안부』문제의 고노담화를 둘러싼 쟁점에 관한 고찰-일본 국내의 부정론과 긍정론의 논점을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Vol.47, p.294

일본의 의향에 맞지 않는 한국의 언동은 『반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반일』외교, 『반일』여론, 『반일』행위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협한」감정의 원인은 『반일』국가인 한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한」데모, 「협한」서적 등의 「협한」에 반대하는 측이 「협한」언설을 라벨링해서 사용하는 반면, 재특회의 사쿠라이는 스스로의 저작의 제목에 『대협한시대』라고 사용했다.

4. 결론

1992년부터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한 「협한」언설은 초기에는 아사히와 산케이 모두 「한국의 과거 집착에 대한 불만」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산케이는 「협한」언설이 확산된 주된 원인을 일관되게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제1-2기에는 「과거에 집착하는 한국의 사회와 반성에 대한 집요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국정부와 미디어가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협력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경제지원 등을 높이 평가했을 때는 「일본국민의 『협한감정』에 대한 배려를 알 수 있다」라고 논평했다. 제3기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국 미디어의 반일보도가 즉각적으로 일본으로 대량 유입되었기 때문에」라고 논하면서, 일본의 「협한」언설은 한국 미디어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종일관 한국 미디어가 일본사회의 「협한」에 대해서 한국사회에 보도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며, 「일본인이 왜 분노를 하며, 일종의 한국 탈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국사회에 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논했다. 하지만 한국의 일간지를 「협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1992년부터 2015년까지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신문은 3곳⁹⁵⁾이며, 게재 건수는 모두 아사히와 산케이보다도 훨씬 많았다. 따라서, 한국 미디어가 일본의 「협한」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가 문제일 것이다. 산케이의 「협한」언설의 특징은 한국이 왜 과거에 집착하는지, 또는 왜 반일감정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협한」언설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만 주장한다.

아사히가 산케이와 다른 점은 일본의 「협한」감정의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책임은 각료 등의 문제적 발언을 용인하는 일본에 있다고 하는 부분이다. 제2기에서는 인터넷 공간 속 「협한」언설의 배경에는 기존의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제3기에서는 악화된 한일관계를 배경으로 한국의 미디어는 일본사회가 「우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반일」감정을 자극한 반면에 일본 미디어는 한국의 일본 비판이나

95) 세계일보 : 251건, 중앙일보 : 187건, 조선일보 : 172건(2015.7.22 검색)

중국과의 유착 등을 「반일」 행동으로 간주하면서 「협한」 감정을 자극하는 등, 공모하는 한일 미디어의 라벨링과 배타적인 내셔널리즘을 비판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협한」 언설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지만, 한국의 대일감정인 「반일감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로서, 한국 미디어가 보도한 「협한」 언설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일본의 「협한」 언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김용기(2014) 「협한과 재일코리안」 『일본학보』 Vol.98, 한국일본학회

박수옥(2009) 「일본의 협한류와 미디어내셔널리즘 : 2ch와 일본 4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Vol.47, 한국언론정보학회

정수영(2010) 「『만화 협한류』의 이야기 분석을 통해 본 일본 내 협한류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 학연구』 Vol.58 한국출판학회, p.192

依木はるみ(2015) 「日本軍『慰安婦』問題における河野談話をめぐる争点に関する考察—日本国内における否定する側と肯定する側の論点を中心に」 『日本近代学研究』 Vol.47

石田佐恵子(2007) 「韓流ブームのさまざまな語り手たち」 『ポスト韓流のメディア社会学』 ミネルボ書房

小倉和夫(2014) 「日韓関係をとりまく環境変化と今後の課題」 『日韓関係の争点』 藤原書店

梶田陽介(2015) 「花田編集長は『へイト本』という方が『へイト!』と逆ギレした」 『さらば! へイト本』 ころから出版

木村幹(2007) 「ブームは何を残したか」 『ポスト韓流のメディア社会学』 ミネルボ書房

木村元彦(2015) 「嫌韓誘導記事を量産した編プロ社員が語る '責任!」 『さらば! へイト本』 ころから出版

小針進(2014) 「分析—日本と韓国はどこに問題があるのか」 『日韓関係の争点』 藤原書店

桜井誠(2014) 『大嫌韓時代』 青林堂

樋口直人(2014) 『日本型排外主義』 名古屋大学出版会

武藤正敏(2015) 『日韓対立の真相』 悟空出版

村上和弘(2007) 「インターネットのなかのツシマ」 『ポスト韓流のメディア社会学』 ミネルボ書房

師岡康子(2013) 『へイト・スピーチとは何か』 岩波新書

安田浩一(2015) 『へイトスピーチ 愛国者たちの憎悪と暴力』 文芸春秋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平成26年10月)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 (2014.12.22更新日)
<http://survey.gov-online.go.jp/h26gaiko/zh/zll.html> (2015.6.30検索)

日本新聞協会 <http://www.pressnet.or.jp> 「新聞の発行部数と世帯数の推移」 (2015.7.20検索)

フリー百科事典Wikipedia : <https://ja.Wikipedia.org> (2015.6.26検索)

フリー百科事典Wikipedia : <https://ko.Wikipedia.org> (2015.6.26検索)

新聞の検索 <http://t21.nikkei.co.jp/g3/CMN0F14.do> (2015.7.24検索) ソウル大学 日本学研究所

朝日新聞 1992/8/12,8/15, 1994/8/5, 1996/6/2,6/24, 1998/9/30, 2001/8/24, 2002/10/2, 2005/11/4, 2006/1/1, 2007/5/30, 2011/10/5,2013/8/10, 2014/6/24,8/7,9/3,10/7,10/12,12/17, 2015/2/12,3/2,3/14,4/25 6/22,7/6,7/8

産経新聞 1992/10/29,11/10, 1993/2/25,2/26,,6/21,8/16, 1995/1/12, 1996/5/14, 1997/11/29,12/3, 1998/10/3,

10/4,10/8,10/9, 2001/8/6, 2002/4/18,7/1, 2005/6/21,8/6,8/27,11/4, 2013/8/4,9/9,10/12,
2014/1/6,1/11,1/26,12/29, 2015/4/12,5/21,6/21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要旨>

일본 신문에 나타난 「혐한」언설의 의미 고찰

- 1992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를 제3기로 구분해서 일본의 신문 속 「혐한」언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기 : 1992-1998>일본군의 「위안부」문제를 외교문제로 재점화하는 한국정부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 한일우호에 전념해 온 일부 사람들의 사이에서 한국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것을 「혐한」감정이라고 기술했다. <제2기 : 1999-2011>1998년의 「한일공동선언」을 통해서 활발해진 한일 민간교류와 월드컵, 그리고 2003년부터 시작된 한국 드라마의 유입을 통해서 한류가 시작되었고,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가 「느끼지 않는다」보다 상회한 시기이다. 하지만 월드컵 보도와 북한의 납치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공간에서는 「혐한」언설이 확산되었고, 이는 「만화 혐한류」를 기폭제로 해서 일반 사회로 분출되었으며, 재특회의 재일코리아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등의 형태로 인터넷 밖의 시민 공간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산케이와 아사히 모두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한 대부분의 기사가 「혐한」언설로는 표현·개제되지 않았다. <제3기 : 2012-2015>「혐한」언설은 혐한서적을 비롯한 보수계 잡지, 주간지, 일간지 등을 통해서 불특정다수인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기에 발족한 한일 양국의 현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역사인식의 차이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미디어는 서로 배타적 내셔널리즘의 언설을 전개했다. 이와 같이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한일관계를 배경으로 「혐한」언설 역시 한국 국민 모두가 「반일」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반일」외교, 「반일」행위라고 라벨링하며, 「혐한」의 모든 원인은 「반일」보도를 하는 한국 미디어와 「반일」국가인 한국정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tudy on the meaning of ‘Hating Korea’ statement through the Japanese newspapers

- Mainly with the Asahi newspapers and Sankei newspapers from the year 1992 to 201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Hating Korea’ divide into three parts appeared on newspapers from the year 1992 to 2015. The first part(1992-1998):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prime minister had apologized for the war crime ,the Korean government pounced on the matter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a diplomatic problem. It triggered a phenomenon known as “Hating Korea”. The second part(1999-2011): Japan-South Korea Joint Declaration of 1998 has led to increased positive awareness of Korea through the 2002 World cup, and the Korean Wave in Japan. However, it has also triggered a phenomenon known as the “Hating Korea” due to increased awareness of various Korean-Japanese disputes such as the issue of the broadcasting 2002 world cup and kidnapping Japanese in North Korea. Also, the ‘Anti-Korean’ comic book was published in 2005, and ‘Zaitokukai’ founded in 2007 did ‘Hate speech’ toward Zainichi Koreans. They regulated Korea, North Korea, and Zainichi Koreans as anti-Japanese. Nevertheless, the Asahi and Sankei newspaper seldom said about these phenomena in this term. The third part(2012-2015): After president Lee myung-bak visited the Dokdu(Takeshima), the ‘Hating Korea’ statement has been overflowed in the magazines, newspapers and ant-Korean books in Japan. The launching of the Abe Shinzo government and Park geun hye government in 2013, diplomatic problem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exclusive media and nationalism of the two countries were in the back ground of the phenomena.